

포스터의 한글 타이포그래피 활용 서체 분석
- 국립한글박물관의 2014년~2019년 포스터를 중심으로 -

The Analysis of Typefaces Using the
Hangeul Typography on the Poster
- Focusing on the Poster of the National Hangeul Museum from 2014 to 2019 -

주저자

한 석 원 Han, Seok-won

단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 조교수 | Assistant Professor of Dankook University

hhaanngo@naver.com

투고일	2019.09.23	심사일	2019.10.24	게재확정일	2019.10.28
-----	------------	-----	------------	-------	------------

이 논문은 2018년도 단국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습니다.

www.kci.go.kr

목 차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이론적 배경

- 2.1. 포스터의 개념과 구성요소
 - 2.1.1. 포스터의 개념
 - 2.1.2. 포스터와 타이포그래피 사용의 인식변화

3. 타이포그래피 분석

- 3.1. 부리형
- 3.2. 민부리형
- 3.3. 손글씨형
- 3.4. 옛활자형
- 3.5. 복합유형
- 3.6. 종합 분석 결과

4. 결론

참고문헌

Keyword

한글, 타이포그래피, 포스터, 조판, 방향
Hangeul, Typography, Poster, Typesetting,
Orientation

Abstract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type analysis and visual characteristics of typography on the posters based on Hangeul in recent years. The study was limited to the National Hangeul Museum and analyzed Hangeul typography posters used for promotional exhibitions from 2014 to 2019. For analysis of Hangeul typography, the types are classified into Serif type, Sans-serif type, Calligraphy type, Hunminjeongeum type, and Complex type to compare the ratio of the totalization of Hangeul typography to the limited poster space, and the visual characteristics were derived by the direction of typesetting. As a result, the frequency of Hangeul typography posters of the National Hangeul Museum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starting from 2014 to 2019, and the frequency of Hangeul typography has increased around the Serif type and Sans-serif type. It shows that the ratio of totalization to the poster space occupied by the exhibition title using typography has increased. In addition, The typesetting direction of typography on the poster was found to change the structure according to readability and visual characteristics of the Hangeul types.

논문요약

이 연구는 최근 수년 간 한글을 기반으로 한 포스터의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글자유형 분석과 시각적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국립한글박물관으로 한정하였으며,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한글과 관련된 전시회 홍보를 위해 사용된 한글 타이포그래피 포스터를 분석하였다.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분석을 위해 글자유형을 부리형, 민부리형, 손글씨형, 옛글씨형, 복합유형으로 분류하여 제한된 포스터 공간 대비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전면화 비율을 분석하고, 글자유형에 따른 글자쓰기 조판 방향을 통해 시각적 특징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2014년도를 시작으로 2019년 현재까지 국립한글박물관의 한글 타이포그래피 포스터의 사용빈도는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부리형과 민부리형을 중심으로 사용빈도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타이포그래피를 사용한 전시회 제목이 차지하는 면적 대비 전면화의 비중이 높아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포스터에 나타난 글자쓰기의 조판방향은 글자유형의 가독성과 시각적 특성에 맞게 구조가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역사를 이어오면서 글자는 인간과 사회적 의사소통을 안내하는 단어와 이미지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글자로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더 훌륭하고 강력하다. 이러한 이유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접근 및 글자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연구와 시도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근래에는 젊은 디자이너 세대를 중심으로 한글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디자이너 정진열은 과거의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디자인에서 레터링을 포함하여 한글 타이포그래피를 활용한 디자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매체의 다양성에 따라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메시지를 전달해야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하였다.¹⁾

메시지 전달을 위한 다양한 매체들 가운데 특히 포스터의 특정 양식에 주목한다. 한글을 중심으로 타이포그래피의 새로운 표현기술과 흥미로운 레이아웃 구성, 그리고 글자 변형을 통해 특정 단어와 이미지를 집약적으로 시각화하여 대중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근래에는 한글 타이포그래피를 중심으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된 모습과 차이점을 보이고 있으며 여기에는 몇 가지 특징을 찾아 볼 수 있다. 전가경(2013)에 의하면, 2010년 이후 국내에서 디자인된 포스터의 특정 양식의 가장 큰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전면화라고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전면화란 포스터의 한정된 크기 안에서 제목용 한글이 차지하는 면적이 그 밖의 정보 요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는 사실, 그리고 한글이 포스터의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그 자체가 하나의 '조형적' 메시지로서 기능을 하고 있음을 뜻한다. 또한 전면화와 함께 부각될 수밖에 없는 한글의 또 다른 특징은 이미지화이다. 이러한 한글의 이미지화 과정은 왜곡, 한글 자소의 해체, 레터링 등 다양한 한글 다루기 방식들로 진행된다²⁾고 언급한다.

이러한 한글의 변화와 진화는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시각적 특징을 담고 있으며, 한글을 활용한 포스터에 있어 글자 형태의 유형과 기능 간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타이포그래피의 개념을 정리하고 한글 중심의 포스터에 나타난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다양한 형태에 따른 글자유형의 분석을 통해 근래에 인지되고 있는 타이포그래피의 시각적 특징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논문은 포스터를 중심으로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이다. 연구를 위해 첫째, 국내·외 학위 논문과 디자인 관련 문헌들을 통해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둘째, 홍보용 매체 가운데 한글을 기반으로 한 포스터를 중심으로 한글 타이포그래피를 글자 유형별로 분류하고 조형적 측면에서 유형별 시각적 형태의 특징을 분석한다. 글자유형 분석방법을 위한 참고자료는 특허청의 '글자체 디자인의 출원요건 및 분류체계와 심사참증자료의 체계화에 관한 연구'의 분류체계 기준표를 활용하여 본 연구의 5가지 유형분류의 참고기준에 맞도록 글자의 형태적 유사성을 나누는 척도로 삼는다. 셋째, 포스터의 한정된 공간 안에서 사용된 제목용 한글이 차지하는 면적의 전면화 비율 분석을 통해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시각적 의존도를 알아본다. 또한 유형별 분석 및 전면화와 함께 포스터에 사용된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조판배열 방향, 즉 글자유형에 따른 가로쓰기와 세로쓰기의 비율 분석을 통해 타이포그래피의 배열구조와 글자유형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범위는 문화유산인 '한글'을 주제로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한글의 문화·예술적 전시와 다양한 교육 및 체험활동 등을 운영하는 국립한글박물관³⁾을 중심으로 한정한다. 포스터는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진행된 전시행사를 위해 제작된 포스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행사를 통해 열리는 한글 전시회가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한글 타

1) CA 컬렉션 시리즈 Vol.08.(2013). 타이포그래피, 퓨처미디어, pp.184-187

2) 전가경.(2013). 타이포그래피의 새로운 목소리:2010년 이후 한글 타이포그래피 포스터.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oneyshy1&logNo>

=100179904369&parentCategoryNo=&categoryNo=23&viewDate=&isShowPopularPosts=true&from=search

3) 국립한글박물관. <https://www.hangeul.go.kr>

이포그래피 포스터의 정체성을 살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관된 디자인 형태와 스타일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한글을 바탕으로 한 포스터를 연구하는 것은 대중들에게 한글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반영하고 시각적으로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판단하고 있다. 포스터는 국립한글박물관이 개관한 2014년을 시작으로 2019년 3분기 현재까지 전시회와 다양한 문화 행사를 위해 제작된 한글을 활용한 타이포그래피 포스터를 중심으로 총 35 종의 포스터를 연구 범위로 설정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포스터의 개념과 구성요소

2.1.1. 포스터의 개념

포스터란 주로 종이에 인쇄되며, 시각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 상업 선전물을 말하며 원래 기둥을 뜻하는 'Post'에서 유래된 것으로 거리의 벽이나 기둥에 부착되는 선전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⁴⁾ 또한 포스터는 시각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하는 매체로써 읽는 형식이 아닌 보는 형식의 시각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홍보수단에 활용된다. 따라서 다른 매체에 비해 시각적 요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디자이너의 창의성과 예술적 감각을 바탕으로 시각적이고 심리학적인 조형성이 요구된다.⁵⁾

포스터에 나타난 글자들은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감각적인 표현과 인상적인 효과로 정보를 시각화 하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포스터는 제한된 2차원의 평면 공간 위에 정보와 디자인 요소를 배열하고 시각화하는 과정을 통해 대중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대중 문화예술과 관련된 포스터의 경우 문화 서비스와 대중을 이어주는 중간자로서, 전달하고자 하는 문화콘텐츠의 내용과 주제를 간단한 글과 이미지를 통해 함축적으로 시각화하고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화행사 관련 포스터의 구성요소에는 전시의 주제를 알리는

주제용 카피, 주제를 뒷받침해 주는 서프 카피, 그 밖의 장소, 날짜,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짧은 정보로 구성된다.

2.1.2. 포스터와 타이포그래피 사용의 인식변화

포스터는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그 의미와 가치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는데 광고 매체로 게시된 후 버려지는 것이 아닌 회화 작품처럼 수집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아트 포스터(Art Poster)'의 등장으로 포스터가 지녀야 할 기능적 수단 외에 개성적 특성도 포함 되어 있다.⁶⁾ 2000년 이후부터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타이포그래피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단순한 글자의 사용이 아닌 포스터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이미지를 표현하는 시각적 형태로 바뀌었다.



[Fig 1] 한글 중심의 타이포그래피 포스터
적축부터: 이재민(2011), 스튜디오 흥단(2013)

[Fig 1]에서 볼 수 있듯이, 2000년 이후 나타나는 눈에 띄는 큰 변화는 타이포그래피 위주의 포스터 표현이 증가했고 타이포그래피의 시각적 비중이 커져 과거에 단순히 문자의 용도로 사용된 것에서 문자와 이미지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⁷⁾는 것이다. 디자인 저술가 전가경은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 최근 많은 디자이너들이 한글 제작 원리에 대한 문제의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글자를 이미지화 시킨다⁸⁾고 언급했는데, 이는 과거의 정적이고 규칙적인 포스터와는 다르게 글자를 활용한 타이포그래피의 사용 증가와 글자를 시각적 형태와

4) 조영제, 권명광, 안상수, 이순종 기획.(2003). 디자인사전, 안그래픽스, P.42

5) 안상락 박정희.(2010). 광고 광고디자인, 비즈 앤 비즈, p.44

6) 박선의, 최호천.(2003). 비주얼커뮤니케이션디자인, 미진사, p.137

7) 신승철.(2018). 포스터를 통해 본 한국의 그래픽디자인 변화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52

8) 전가경.(2017). 문자의 이미지성 한글서(書)기술, the T 제10호 혁신2호, p.11

조형적 메시지의 기능적 역할을 담당하는 시각 요소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3. 타이포그래피 분석

본 연구는 국립한글박물관 포스터를 대상으로 2014년에서 2019년에 이르기까지 전시된 총 35개의 포스터를 대상으로 한다. 각각의 포스터는 전시별 성격과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시 특성과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한글 타이포그래피를 통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표현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포스터에 사용되는 글자의 활용을 살펴보면, 전시 주제를 알리는 제목용 글자로 글자의 다양한 조형적 변형과 왜곡을 통한 조형적 메시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세부적인 글자유형 분류의 구체적인 분석이 어려운 한계점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전시 제목용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형태적 유사성을 중심으로 일정한 체계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하는 것이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유형과 조형적 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고, 그 기준은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형태적 유사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발표한 특허청의 ‘글자체 디자인의 출원요건 및 분류체계와 심사참증자료의 체계화에 관한 연구’의 분류체계 기준표를 바탕으로 분류 진행하였다[Table 1].

이 글자체의 출원요건 및 분류체계 기준표의 분류 기준은 구체적인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 아닌 계통적 형태중심으로 분류되었으며, 분류기준은 형태이다. 또한 형태분류의 기준에서 획의 형태, 틀의 형태로 다시 세분화되며, 각 글자분류를 분류기준에 대입⁹⁾하였다.

[Table 1] 특허청의 글자체 분류체계 기준표

	글자체 분류
1	부리류
2	민부리류
3	손긔글씨류
4	옛활자 및 판본류
5	장식글자류
6	미분류

이에 따라, 분류체계 기준표의 분류법을 바탕으로 부리형, 민부리형, 손긔글씨형, 옛활자형으

9) 김나연.(2012). 한글 활자체 유형분류를 위한 형태변별요소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53

로 분류하였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 따른 변형, 왜곡 또는 해체 등 새로운 타이포그래피 표현 유형을 고려하여 복합유형으로 재분류하여 총 5가지 분류체계로 [Table 2]와 같이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글자유형을 다시 세분화하여 나누었다.

[Table 2]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분류체계

	글자체 분류
1	부리형
2	민부리형
3	손긔글씨형
4	옛활자형
5	복합유형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분석방법은 위의 5가지 분류 체계 유형의 개념과 특징적 내용을 살펴볼 것이며, 이후 포스터에 표현된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글자체 유형에 따른 글자조판 배열 방향(가로쓰기 조판, 세로쓰기 조판, 혼용쓰기 조판)[Fig 2]과의 상관관계도 분석해 볼 것이다.

가로쓰기 조판	세로쓰기 조판	혼용쓰기 조판
글자는 왼쪽을 시작으로 오른쪽으로, 글줄은 위에서 아래로 진행	글자는 위를 시작으로 아래로, 글줄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	글자는 위를 시작으로 오른쪽과 아래로 제한없이 진행

[Fig 2] 한글 타이포그래피 포스터의 글자체별 조판 유형

3.1. 부리형

3.1.1. 유형분석

부리형이란, 글자 줄기의 튀어나온 시작 부분을 뜻하는 부리가 달린 글자 유형을 의미하며, 명조체 또는 바탕체라고도 한다. 로마자에서는 세리프(Serif)체라고 일컫지만, 글자 줄기의 시작과 끝에 반드시 붙는 로마자의 돌기와는 달리 붓글씨에서 유래된 한글의 경우, 줄기의 끝마다 돌기가 붙지는 않는다. 따라서 한글은 같은 부리형 일지라도 세로 줄기와 가로 줄기의 시작과 맺음 부분의 다양한 돌기, 맺음, 상투,

빼침의 표현 방법에 따라 상당히 많은 성격의 글자 표현이 가능하며, 이와 같은 특징이 글자의 시각적 인상을 만들어내는 요소가 된다.¹⁰⁾ 본 연구에서는 포스터의 공간 특성상 한글의 표현이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되는 타이포그래피의 특성을 고려하여, 글자의 획과 틀 형태와 상관없이 쓰임새 중심의 구조적 형태를 기준으로 삼아 돌기가 줄기의 시작 부분에 생성된 유형은 부리형으로 분류하였다. 총 35종의 한글 타이포그래피 포스터 가운데 위에서 분류한 부리형을 사용한 포스터는 11개로 분석되었으며, 전체의 약 31.35%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글자유형의 사용빈도 수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Fig 3] 부리형 타이포그래피 포스터 (좌측부터,전시회명,년도 순서) 겨울 문학 여행 (2018), 시가 이야기가 될 때 (2018), 한글 편지, 시대를 읽다 (2015)

3.1.2 타이포그래피의 전면화 비율

부리형 타이포그래피를 사용하는 포스터의 경우, 포스터 전체의 면적 대비 전면화 비율이 평균 22.72%로 나타났다. 이는 타이포그래피의 의존도가 글자유형 가운데 4번째로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에서 볼 수 있듯이 상대적으로 큰 글자를 사용해보다는 넓은 여백과의 대비를 통해 차분하고 서정적인 비주얼을 표현하고 있으며 전시회의 주제와 연관된 시각 요소를 사용하거나 타이틀과 대조를 이루는 작은 글자들을 사용하여 차분한 분위기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3.1.3 타이포그래피의 글자쓰기 조판 방향

부리형 타이포그래피를 사용하는 포스터의 경우, 가로쓰기 조판 방향의 평균 비율은 약 55%와 세로쓰기 조판 방향의 비율은 약 45%로 가로쓰기 조판의 사용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 줄기의 기울기와 상관없이 줄기 끝에 돌출된 부분이 특징으로 부리영역의 다양한 형태는 고전적이고 차분한 인상을 남기며, 본문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구조와 눈에 익숙한 형태를 띠고 있어 가로쓰기 조판 방향과 잘 어우러져 정보를 안정적으로 잘 전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Table 3] 부리형 타이포그래피 조판방향

글자조판 분류	비율 (%)
가로조판	55%
세로조판	45%
혼용조판	-

3.2. 민부리형

3.2.1. 유형분석

부리형과 반대되는 의미의 민부리형은 부리가 없는 글자 유형을 의미하며, 글자의 줄기에 시작과 맺음 그리고 꺾임 등에 필력의 흔적이나 장식성이 없는 글자꼴을 말한다.¹¹⁾ 또한 민부리 글자체를 붓의 필력과 필체로 응용, 그중 필력을 극도로 살리며 필체에 의한 부리(세리프)를 모두 희생시키는 것¹²⁾이라 정의하고 있다.

총 35종의 한글 타이포그래피 포스터 가운데 위에서 분류한 민부리형을 사용한 포스터는 11개로 분석되었으며, 전체의 31.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부리형 수치와 비교하여 사용빈도가 동일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Fig 4] 민부리형 타이포그래피 포스터 (좌측부터,전시회명,년도 순서) 세계의 유산 한글, 아이들과 함께 (2017), 한글이 스승이다. (2019),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포스터 사진, 한글 전래 동화 100년 (2017)

3.2.2 타이포그래피의 전면화 비율

민부리형 타이포그래피를 사용하는 포스터의

11) 정우경,김진영.(2013). 도시 전용서체의 한글 글꼴에 관한 연구-민부리글자체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연구, 제43호, p.92

12) 김진평.(1985). 민부리 글자체에서 붓의 필력과 필체, 한국출판연구소, 한글 글자꼴 기초연구, p.208

10) 김동민.(2015). 타이포그래피 미학, 커뮤니케이션북스, p.21

경우, 전체 면적 대비 전면화는 평균 21.45%로 가장 낮은 비율로 부리형과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의존도 또한 낮게 나타났다. 일정한 획의 굵기를 가진 한글 사용은 다듬어진 형태와 조금은 차가운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다. 이는 [Fig 4]에서 볼 수 있듯이 민부리형 글자 유형의 낮은 의존도를 보완하기 위해 민부리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제와 연관된 기하학적 조형 요소를 배치함으로써 전시의 추가적인 설명과 조형적 기능을 동시에 효과적으로 표현한 것임을 볼 수 있다.

3.2.3 타이포그래피의 글자쓰기 조판 방향

일반적으로 민부리형 글자는 본문 영역에서 부리형에 비해 가독성이 떨어지는 특성이 있지만 표지판이나 홍보물 등 눈에 쉽게 띄고 주목성을 높이 요구하는 매체의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다. 민부리형 한글 타이포그래피 조판 방향의 특징을 보면 가로쓰기와 세로쓰기 조판 방향의 평균 비율은 각각 약 55%와 27%로 세로쓰기 조판 보다 가로쓰기 조판의 사용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부리형과 동일한 사용빈도를 보이는 수치이다. 특이한 점은, 다른 글자 유형에서 드러나지 않은 가로쓰기와 세로쓰기를 혼용한 글자쓰기 조판배열이 이 민부리형에서 나타났으며 혼용조판의 사용빈도는 약 18%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Table 4]. 부리가 없는 글자 유형과 둔탁한 형태는 세로 조판의 적용에는 적절하지 않아 보이나 정형화된 사각형의 형태로 인해 가로와 세로축의 변형 구조에는 어느 정도 응용이 용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4] 민부리형 타이포그래피 조판방향

글자조판 분류	비율 (%)
가로조판	55%
세로조판	27%
혼용조판	18%

3.3 손글씨형

3.3.1. 유형분석

글을 쓰는 형식의 가장 포괄적인 낱말로 필기에 의한 글씨, ‘손멋글씨’는¹³⁾ 손으로 쓴 글씨

라는 의미를 가지며, 손으로 멋을 내어 쓴 글씨¹⁴⁾라는 뜻으로 현재 ‘캘리그래피’, ‘손글씨’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넓은 의미의 캘리그래피는 펜 또는 붓, 나아가서는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여 사진식자나 컴퓨터와 같은 기성의 문자출력시스템에서는 얻어낼 수 없는, 또한 레터링(Lettering)된 문자도 아닌 즉흥적으로 쓰인(Free hand) 육필문자로서 조형적으로 아름답게 묘사하는 기술 및 묘사된 글자를 말한다.¹⁵⁾

분석 결과를 보면, 손글씨형 한글 타이포그래피를 사용한 포스터는 전체 분석 대상 가운데 약 11.4%의 사용빈도를 보이고 있다.



[Fig 5] 손글씨형 타이포그래피 포스터

(좌측부터,전시회명,년도 순서) 공주, 글씨 덕을공주 집안 3대 한글 유산 (2019), 나는 몸이로소이다 - 개화기 한글 해부학 이야기 (2018), 순간의 풍경들, '청구영언. 한글 노랫말 이야기 (2017)

3.3.2 타이포그래피의 전면화 비율

손글씨형 타이포그래피를 사용하는 포스터의 경우, 전면화 비율이 평균 약 45%로 글자 유형 가운데 상위 두 번째로 높게 조사되었다.

[Fig 5]를 살펴보면, 글자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부피감과 질감이 강조된 획이 다양한 굵기와 크기의 변화로 이어짐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멋스러움을 전달하며 이미지나 다른 요소들 없이도 독립적으로 포스터 전면에 넓게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화려함과 전통적인 한글의 아름다움을 연상시키며 멋스러움을 통해 전시 내용을 전달하고 있으며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13)이용제.(2010). 타이포그래피에서 '글자,활자,글씨' 쓰임새 제안 한국타이포그래피학회 제2권 제1호, p.499

14) 김진평.(1983). 한글의 글자표현 미진사, p.117

15)JAGDA 교육위원회 편찬, 김상락·강화선 역.(1995). VISUAL DESIGN Volume 2, 아트 북, p.32

3.3.3 타이포그래피의 글자쓰기 조판 방향

손글씨형 타이포그래피의 가로쓰기 조판 방향의 평균 비율은 0%로 사용빈도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며, 100%의 압도적인 세로쓰기 조판 방향의 사용빈도로 조사 되었다. 이는 [Fig 5]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손글씨형은 아날로그적 특성을 살린 붓의 흘림이나 거친 질감의 재현이 차별화되어 독특한 형태를 보여주며, 네모틀에서 벗어난 듯한 시각적 변화는 필력을 느낄 수 있는 질감과 함께 글자에 리듬감과 흐름을 부여하여 세로쓰기 조판 배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Table 5] 손글씨형 타이포그래피 조판방향

글자조판 분류	비율 (%)
가로조판	-
세로조판	100%
혼용조판	-

3.4 옛활자형

3.4.1. 유형분석

옛활자형 유형은 1443년(세종 25년) 훈민정음이 창제된 해부터 1863년(철종 말년)까지, 421년 동안 만들어진 활자꼴을 가리키며, 이때 만들어진 활자꼴과 유사한 활자꼴 모두를 포함한다.¹⁶⁾ 분석 결과, 총 35종의 한글 타이포그래피 포스터 가운데 전체의 약 5.7%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글자유형의 사용빈도 수는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Fig 6] 옛활자형 타이포그래피 포스터
(좌측부터, 전시회명,년도 순서) 손끝으로 읽는 한글, 훈맹정음 (2018), 세종대왕, 한글문화 시대를 열다 (2014)

3.4.2 타이포그래피의 전면화 비율

16) 한재준, 안상수, 민병걸, 이용제, 박지연, 강은선, 김나연. (2005). 글자체 디자인의 출원요건 및 분류체계와 심사참증 자료의 체계화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조형연구소, p.22

옛활자형 타이포그래피를 사용하는 포스터의 경우, 전체 면적 대비의 전면화 비율은 평균 37.5%를 보이는 것으로 글자유형 가운데 상위 세 번째의 한글 타이포그래피 의존도를 기록하고 있다. 한글이 지닌 일정한 굵기의 글자형태를 조형적 모듈의 개념으로 일정하고 안정된 이미지로 공간을 채우고 있고 있으며, 규칙적인 배열과 그리드를 기반으로 한 배치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Fig 6]. 전시회와 연관된 이미지 사용이나 그래픽 요소를 사용하기 보다는 동일한 옛활자의 시각적 요소를 사용해 배경을 처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4.3 타이포그래피의 글자쓰기 조판 방향

옛활자형 타이포그래피의 가로쓰기 조판 방향의 평균 비율은 100%로 사용빈도 수에 있어 가로가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세로쓰기 조판 방향의 비율은 0%로 나타났다. 한글 창제 시기의 글자유형인 옛활자형은 원래의 세로쓰기 배열 형태와는 다르게, 전시 포스터에서는 가로쓰기만 조사되었다. 이는 옛활자형이 부리가 없는 민부리형 글자의 성격에 가깝게 보여 지고 민부리형 글자와 같이 눈에 쉽게 띄고 주목성이 높아 보이는 시각적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Table 6] 옛활자형 타이포그래피 조판방향

글자조판 분류	비율 (%)
가로조판	100%
세로조판	-
혼용조판	-

3.5 복합유형

3.5.1 유형분석

부리형과 민부리형을 기반으로 한 복합유형은 디지털 환경에 따른 변형이나 도형의 사용 등 새로운 표현이 복합적으로 추가되어 부리형과 민부리형, 손글씨형과 옛활자형에서 벗어난 글자 유형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형은 장식적 요소를 배제한 기술적 부분이 더해져 새로운 접근으로 표현된 실험적인 형식의 글자유형이라 볼 수 있다.

분석 결과, 총 35개의 한글 타이포그래피 포스터 가운데 복합유형의 한글 타이포그래피를 사

용한 포스터는 7개로 분석되었으며, 전체의 19.95%를 차지하고 있고, 세 번째로 많이 쓰이는 글자유형으로 나타났다.



[Fig 7] 혼합유형 타이포그래피 포스터
(좌측부터, 전시회명,년도 순서) 소리×글자: 한글 디자인 (2017), 한글디자인: 형태의 전환 (2019), 소리×글자: 한글디자인 (2018)

3.5.2 타이포그래피의 전면화 비율

혼합유형 타이포그래피를 사용하는 포스터의 경우, 전면화 비율은 평균 약 47.5%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전면화 비율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타이포그래피의 의존도 또한 높게 나타났다. [Fig 7]의 두 번째 예시(한글디자인: 형태의 전환)를 보면, 혼합유형 타이포그래피는 한글을 바탕으로 글자의 왜곡을 적용하여 전시 포스터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미지 시각화로 나타내고 있으며, 강한 형태와 더불어 개성적이고 독특한 글자의 조형적 표현과 한글 자소의 해체 등 글자의 이미지를 통해 전체 공간 대비 글자의 전면화가 넓게 분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혼합유형의 한글 타이포그래피는 다양한 시각적 효과를 적용시켜, 타이포그래피가 자기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대담한 형태로 메시지를 전달함을 알 수 있다.

3.5.3 타이포그래피의 글자쓰기 조판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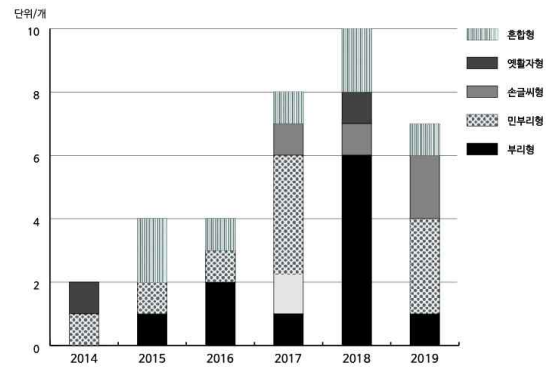
혼합유형의 한글 타이포그래피 조판배열 방향은 가로쓰기 조판 비율이 평균 71%의 사용빈도 수치를 보이고 있고, 세로쓰기 조판 방향의 비율은 29%로 나타났다. 혼합유형은 다양한 기술적 표현과 정형적인 형태의 타이포그래피로 인해 과감한 시각적 구성을 보이기 때문에 세로쓰기 조판 보다는 가독성을 고려하여 가로쓰기 조판의 사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Table 7] 혼합유형 타이포그래피 조판방향

글자조판 분류	비율 (%)
가로조판	71%
세로조판	29%
혼용조판	-

3.6 종합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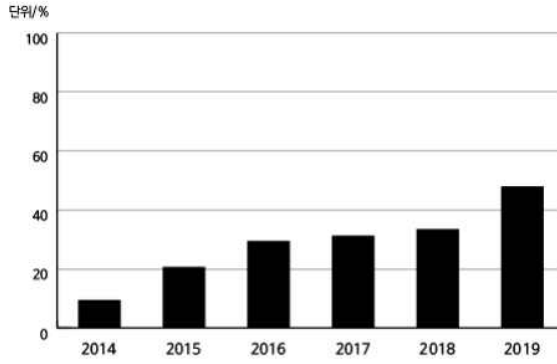
본 논자는 전술된 분석을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하였고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Fig 8] 글자 유형별 활용 빈도 수 및 연도별 사용 종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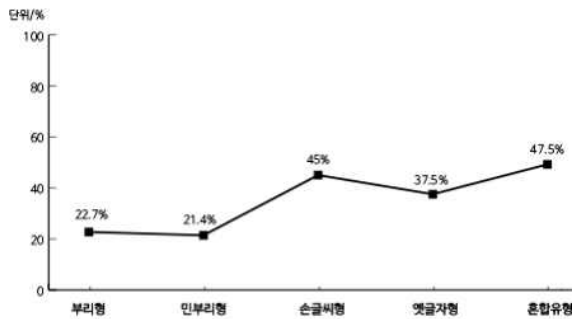
첫째, 2014년도를 시작으로 2019년 3분기 현재까지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활용빈도는 점점 증가하였다. [Fig. 8]의 ‘글자 유형별 활용 빈도수 및 연도 별 사용 종합 분석’ 그래프를 보면, 2014년도를 시작으로 2019년 현재까지 한글 타이포그래피 포스터의 사용 빈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4년 박물관 개관 년도를 제외하더라도 한글 포스터의 제작 빈도는 2015년 대비 2018년에 2.5배의 증가 추세를 볼 수 있다. 또한 이 분석을 통해, 다양한 글자유형이 시도되었던 2017년 이후로, 부리형 한글 타이포그래피가 높은 사용빈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17년과 2018년은 한글 타이포그래피 글자유형의 사용비율 대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시기이고, 아이러니하게도, 2017년에 민부리형 타이포그래피가 강세를 보이는 반면에 2018년 한 해 동안에는 민부리형의 사용빈도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부리형이 강세를 보이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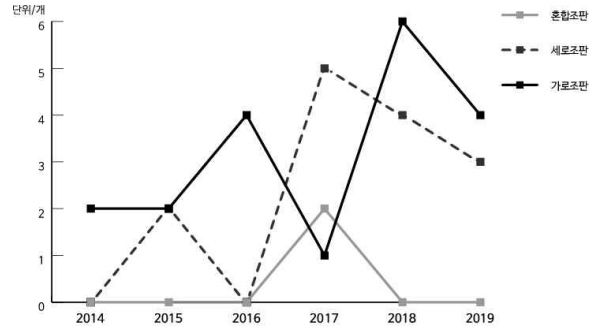
[Fig 9] 연도별 전면화 비율 종합 분석

둘째, 포스터에서 한글 타이포그래피는 시각적 이미지의 요소로 사용되는 시도와 함께 전면화의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Fig 9]의 그래프를 보면, 2014년을 시작으로 타이포그래피의 전면화 비율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한글 타이포그래피가 전시 주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전시회의 분위기와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독립된 형태의 시각 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Fig 10] 글자유형별 전면화 비율 종합 분석

[Fig 10]의 '글자유형별 전면화 비율 종합분석'을 살펴보면, 혼합유형과 손글씨형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약 48%와 45%의 비율을 보이며 정형화된 것에서 벗어난 개성 있는 한글 타이포그래피를 전면에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Fig 8]의 '글자 유형별 활용빈도 수 및 연도별 사용 종합 분석'과 비교해서 알 수 있듯이, 2015년을 기준으로 포스터에 활용된 복합유형의 타이포그래피는 전시와 관련된 사진 등의 시각적 요소보다 타이포그래피를 활용한 변형이나 해체 등의 복합적이고 실험적인 표현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Fig 11] 글자조판 유형에 따른 연도별 사용빈도 종합 분석

셋째, 글자유형에 따른 글자조판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는 한글의 글자유형에 따른 가독성과 시각적 요소와 연관된 부분으로 보이며, 전시회 주제라는 주요 정보전달 내용에 적합한 글자유형과 글자조판 방식을 적용하려는 결과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Fig 11]의 '글자조판 유형에 따른 연도별 사용빈도 종합 분석'을 살펴보면, 가로쓰기 조판 유형은 2017년을 제외하고는 사용빈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특이한 점은, 가로쓰기와 세로쓰기를 병행했던 혼용조판 유형이 2017년에만 시도되었을 뿐 이전과 이후 년도에는 병행형태의 한글 타이포그래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위의 [Fig 8]의 '글자 유형별 활용 빈도수' 그래프와도 연관성을 보이고 있는데, 다양한 글자유형이 시도된 2017년과 병행형태의 혼용쓰기 조판이 시도된 2017년의 데이터를 대조·분석 해보면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한글 타이포그래피가 가장 많이 시도되었던 시기가 2017년이 기점이었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4. 결론

본 연구는 국립한글박물관을 중심으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전시회 홍보를 위해 사용된 포스터의 한글 타이포그래피 유형 분석과 시각적 특징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국립한글박물관의 한글 타이포그래피를 바탕으로 한 포스터는 부리형과 민부리형을 중심으로 사용빈도가 많았음을 알 수 있었고, 타이포그래피의 사용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이전과 다르게 포스터의 한정된 영역에 제목이 차지하는 공간 대비 전면화의 비중이 높아졌으며, 이는 그 밖의

다른 시각정보 요소들의 도움 없이도 한글 타이포그래피가 하나의 독립적인 조형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능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전보다 더 실험적이고 과감한 시각적 표현으로 개성이 강한 한글 타이포그래피가 늘어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글자유형에 따른 글자쓰기 조판방향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글자쓰기 조판배열의 방향에 있어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병행형태의 혼용쓰기 조판은 지양되는 경향을 보였다. 더 나아가 한글의 글자유형의 시각적 특성에 따른 가독성 및 조형적 요소와 연관되어 조판배열에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국립한글박물관이라는 제한적이고 한정된 공간에 대한 한글 타이포그래피 글자유형의 분석이라 좀 더 다양한 분석과 세분화된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계점으로 남지만, 한글 타이포그래피 중심의 포스터 제작이 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글자유형의 특성과 시각적 요소와의 상관관계를 통해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전반적인 흐름과 진화되고 있는 한글의 시각적 표현 방법을 살펴보는 데 가치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한글 기반의 타이포그래피 포스터뿐만 아니라, 디자인 전반에 걸친 다양한 분야에서 한글 타이포그래피를 활용한 효과적인 연구로서의 의미를 가질 것으로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조영제, 권명광, 안상수, 이순중.(2003). 디자인사진. 안그래픽스.
- 박선의, 최호천.(2003). 비주얼커뮤니케이션디자인, 미진사.
- 신승철.(2018). 포스터를 통해 본 한국의 그래픽디자인 변화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가경.(2017). 문자의 이미지성 한글·서(書)·기술. the T 제10호 혁신2호.
- 김나연.(2012). 한글 활자체 유형분류를 위한 형태변별요소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동민.(2015). 타이포그래피 미학. 커뮤니케이션북스
- 정유경,김진영.(2013). 도시 전용서체의 한글 글꼴에 관한 연구-민부리글자계열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연구. 제43호.
- 김진평.(1985). 민부리 글자체에서 붓의 필력과 필체.

한국출판연구소. 한글 글자꼴 기초연구.

- 이용제.(2010). 타이포그래피에서 ‘글자,활자,글씨’ 쓰임새 제안 한국타이포그래피학회 제2권 제1호.
- 김진평.(1983). 한글의 글자표현, 미진사.
- JAGDA 교육위원회 편찬. 김상락·강화선 공역.(1995). VISUAL DESIGN Volume 2. 아트 북.
- 한재준 안상수 민병걸 이용제 박지연 강은선 김나연.(2005). 글자체 디자인의 출원요건 및 분류체계와 심사참증자료의 체계화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조형연구소.
- CA 컬렉션 시리즈 Vol.08. 타이포그래피. 퓨처미디어.(2013). 184-187.
- 국립한글박물관. <https://www.hangeul.go.kr>.
- 전가경. 타이포그래피의 새로운 목소리 : 2010년 이후 한글 타이포그래피 포스터. <http://blog.naver.com>.